

쌍용양회 6,000억원 출자전환

(2003. 7. 2)

조흥·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쌍용양회에 대해 6,000억원의 출자전환을 해줄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최근 쌍용양회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출자전환을 요청해움에 따라 주요 채권 금융기관들이 논의한 결과 부채 2조 2,000억 원에 대해 채무 재조정해 주기로 잠정결론을 맺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부채 2조 2,000억원 가운데 1조 6,000억원은 2005년말까지 만기상환을 연장해 주고 금리도 10%대에서 7%대로 낮추는 한편 나머지 6,000억원은 출자전환 해주기로 했다. 지난 2001년 11월 1차 채무재조정 방안 때 채권단과 태평양시멘트(TCC)간에 결의된 총 1조 6,500억원과 이번 6,000억원의 출자전환이 되면 1대 주주인 일본의 태평양시멘트의 지분은 35.6%에서 21%로 떨어지게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출자전환이 이뤄질 경우 쌍용양회의 부채비율은 580%에서 150%선으로 떨어져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게 돼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이와 함께 연간 매출액 1조 2,000억원을 유지할 경우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라파즈한라, 수해지역 사랑의 집짓기 참여

(2003. 7. 2)

라파즈한라시멘트와 라파즈코리아석고는 2일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와 후원 협약을 맺고 올해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소요되는 시멘트와 석고보드 전량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4일부터 9일까지 강릉, 삼척, 진주, 군산 등에서 열리는 ‘한국민간건축 2003’ 행사에는 총 6천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지난해 태풍 루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을 위해 40가구의 집을 짓는다. 두 회사는 이번 행사에 시멘트 984톤과 석고보드 6,300매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임직원 및 가족 70여명이 여름휴

가를 이용해 사랑의 집짓기 자원봉사에 나설 예정이다. 해비타트 운동으로 불리는 사랑의 집짓기는 전 세계 87개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와 건축기금, 기자재 후원 등을 통해 저소득 무주택 가정에 무상으로 집을 지어주는 행사이다.

환경부, 건설폐기물 재활용 추진

(2003. 7. 12)

환경부는 최근 ‘건설폐기물의 관리강화 및 적정처리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건설교통부 및 지자체 등의 협조를 통해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제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으로 하루평균 10만톤, 연간으로는 4,000만톤 가량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2,911만톤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폐기물은 유해성이 적고 파쇄·선별 등 단순 작업공정으로 인해 재생골재 생산율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생산된 재생골재도 단순 건축현장의 성토재 등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형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된 폐기물관리법을 연내 정비하기로 하고 먼저 공공기관의 재생골재 사용 의무화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며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의무화,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200대 기업 설비투자 15조 4,000억원

(2003. 7. 13)

13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200대 기업 설비투자 계획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반기 총투자 예상액은 한국전력, 삼성전자 등 상위 5대기업이 7조 7,973억원, 나머지 7조 5,611억원 등 15조 3,58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대 기업

투자는 0.2% 감소하는 반면 나머지 기업은 21%나 증가한 것이어서 이라크전, 북핵위기, 사스, 화물연 대파업 등으로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점차 회복추세에 있음을 반증했다. 상반기 투자는 5대 기업이 작년보다 무려 31.5% 증가한 8조 3,737억원을 투자비로 집행했으나 나머지 기업은 5조 1,548억원으로 증가폭이 2.1%에 그쳐 5대기업 투자비중이 62%에 달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200대 기업 설비투자액은 28조 8,869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3.4% 증가할 전망이다. 산자부 최준영 산업정책국장은 “수출증가세 유지, 세계경기 회복기대, 정부의 투자활성화 시책효과 가시화 등으로 하반기 설비투자는 상반기보다 확대되지만 중소기업 투자는 올해 4조 7,203억원으로 3.2%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돼 대기업-중소기업간 투자 양극화가 심화, 전체적인 투자 증가를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일, 몽골에 ‘레미탈’ 수출

(2003. 7. 14)

한일시멘트가 독자개발한 드라이몰탈 ‘레미탈’로 아시아 시장에서 본격 공략에 나섰다. 한일시멘트는 13일 “지난 6월 몽골에 40kg짜리 일반 미장용 레미탈과 가정용 레미탈을 각각 1,500포와 950포를 우선 공급했으며 앞으로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몽골에 우리나라 전자재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측은 또 베트남에 대형 건축물의 고강도 파일용 혼합재 ‘오메가 3000’의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작년부터 일본 유통체인 ‘100엔숍’에 수출하기 시작한 800g짜리 가정용 레미탈은 현지 업체의 요청으로 초기 3종류였던 제품을 현재는 5종으로 확대해 공급하고 있다. 한일시멘트는 이밖에 중국과 홍콩, 러시아 등과도 레미탈 제품 수출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일시멘트의 독자브랜드 ‘레미탈’은 건축물 외부 마감재로 시멘트 모래 특성강화제 등을 미리 혼합해 건축현장에 공급하는 시멘트 2차 제품으로, 국내 몰탈시장에서 60% 이상의 점

유율을 보이고 있다.

건산연, 건설자재 가격 안정세

(2003. 7. 26)

올 상반기 인상리시를 이뤘던 레미콘 등 건설자재 가격이 하반기 들어서면서 안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26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들어 고강도파일과 레미콘, 시멘트(포장), 합판 등의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하반기 들어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시멘트 가격(40kg 포장시멘트 기준)은 2001년과 지난해에 각각 10.0%와 7.5%가 상승했지만 올해들어 1.3% 오르는데 그쳤다. 또한 레미콘 가격은 지난해 5.1% 올랐으나 올해는 평균 2.7%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강도파일은 고층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인천 송도 등 연약지반의 아파트공사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큰폭으로 증가, 올해 13.6%의 가파른 가격인상이 이어졌다고 건산연은 분석했다. 합판(12mm 짜리 122×244 규격기준)도 지난해 2.7%의 가격이 인상된 이후 올들어서는 1.6%가 인상되는데 머물렀다. 건산연 관계자는 “자재가격은 고강도파일 등의 가격 인상폭이 컸지만 하반기에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랑의 집짓기’ 400km 자전거 국토횡단

(2003. 7. 29)

라파즈한라시멘트 직원들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 기금마련을 위한 4백km 사이클링 횡단 프로그램에 도전장을 던졌다. 한국·일본 대학생 70명과 함께 서울에서 강릉까지 사이클로 5박 6일의 대장정을 펼치는 주인공은 이 회사 물류관리팀의 심영철씨와 광산팀의 이응완씨. 28일 서울을 출발해 8월1일 강원도 태백의 라파즈한라 신기공장에 도착하면 물류관리팀의 김홍화씨와 광산팀의 유남현씨가 바톤을 넘겨받아 완주하게 된다. 심씨는 “라파즈한라시

멘트가 올해로 4년째 후원하고 있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해비타트·Habitat)'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봉사하는 삶의 기쁨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직원들은 모두 강원도 출신. 지난해 태풍 루사로 수재를 입은 강릉 삼척의 고향주민들을 위해 '사랑의 집짓기 운동' 거리 홍보대사로 나선 셈이다. 이들은 각 1km당 1,000원씩의 모금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다. 그중 20만원은 라파즈한라시멘트의 기업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10만원은 최종 목적지인 강릉시내에서의 모금행사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상반기 주택건설 실적 3.2% 증가

(2003. 7. 30)

올 상반기 주택업계는 아파트 건설은 활기를 띠 반면 다세대 및 단독주택 건설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건설 실적은 32만 1,471가구(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기준)로 지난해 동기보다 3.2% 증가했다. 이는 올해 주택건설 목표인 50만가구의 64.3%에 해당하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4만 5,610가구, 다세대·단독주택 등이 7만 5,86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아파트는 63.9% 증가한 반면 다세대 등은 53.1% 감소했다. 아파트의 경우 지역별로는 서울이 6만 399가구로 지난해보다 167% 증가했고 경기와 인천이 5만 6,900가구, 2만 539가구로 각각 85%, 44% 늘었다. 지방의 경우도 10만 7,772가구로 28.5% 증가했다. 반면 다세대·단독주택의 급감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건축업자들이 저금리를 활용, 임대업용 다세대 등을 많이 지었으나 주차장 확보기준이 강화되면서 시들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교부는 올 상반기 아파트가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건설된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목표인 50만가구 건설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고강도파일 수요 피크

(2003. 8. 4)

2일 원심력조합에 따르면 동서산업과 대림콘크리트, 영풍산업 등 생산업체들이 올 상반기 동안 전국 현장에 공급한 파일은 모두 221만 4,551톤으로 공식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187만톤에 비해 18.7% 늘어난 것으로 지난 95년 이후 고강도파일이 건설현장에 공급된 이후 상반기 출하물량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월별로는 1월 32만 7,000톤, 2월 32만 4,000톤 등으로 동절기임에도 전년 대비 20%대의 출하신장률을 보였으며 3월과 4월에도 42만 1,000톤, 41만톤을 출하해 2개월 연속 월출하량 40만톤을 기록했다. 이어 5월에 38만 6,000톤, 6월에는 34만 3,000톤을 건설현장에 공급했다. 이처럼 고강도파일의 수요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은 수도권의 아파트 건설물량이 지속적으로 착공되고 있는데다 행정신도시 이전과 관련된 대전·충청권의 아파트사업과 부산·영남권의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고강도파일 생산은 상반기 동안 모두 228만 8,000톤으로 전년 같은기간 163만 7,000톤에 비해 39.8%가 늘어났다. 이는 건설현장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그동안 가동을 멈췄던 공장들이 새로 시장에 진입한데다 기존 업체들도 주야간 생산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한편 업체들이 쌓아놓고 있는 재고물량은 19만 9,594톤(99,043본) 수준으로 나타났다.

레미콘 출하 신기록

(2003. 8. 4)

올 상반기 전국의 건설현장에 공급된 레미콘은 모두 6,800만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368만³에 비해 7.07% 늘어난 것으로 상반기를 기준으로 역대 최고기록이다. 2일 레미콘연합회에 따르면 올들어 전국 625개사 751개 공장에서 건설현장에 출하한 레미콘은 민수 5,425만

8,000m³와 관수 1,393만 2,000m³ 등 모두 6,819만 1,260m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도권에서 건설 활동이 건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과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지역의 아파트 사업등 건설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다 강원지역의 수해복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민수(177만 6,000m³)보다 수해복구용 관수물량(204만 7,000m³)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태풍과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공사가 활기차게 추진됐음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지역별 레미콘공장 가동률은 부산지역이 53.4%로 가장 높은 가운데 수도권 46.3%, 경남 41.1%, 대구 40.5% 수준이었으며 강원과 광주·전남, 경북지역이 31%대, 제주가 23.9%로 전국 평균치인 38%선을 밑돈 것으로 분석됐다.

**SKC&C, 성신양회 단양공장에
통합정보시스템 공급키로**
(2003. 8. 11)

SKC&C는 성신양회 단양공장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성신양회 단양공장의 전 업무영역에 걸친 이 프로젝트는 시멘트업계 통합정보시스템으로는 국내 최초의 프로젝트다. SKC&C는 다른 시스템과 연계해 통합된 생산정보관리를 할 수 있는 '생산관리시스템'을 비롯 '설비관리시스템' '품질관리시스템' '환경관리시스템' 등을 모두 닷넷기반의 웹시스템으로 구축하게 된다. SKC&C 관계자는 "통합생산시스템 분야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신양회 단양공장이 시멘트 업계의 초일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양회 5년만에 흑자
(2003. 8. 12)

쌍용양회가 반기 기준으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경상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쌍용양회는 11일 올 상반기에 522억 4,400만원의 경상이익을 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6% 증가한 1,112억 900만원을 올렸다. 상반기 매출은 13.1% 늘어난 6,210억원을 거뒀다. 지난해 특별이익이 계상됐던 순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 줄어든 574억원에 머물렀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3,661억 600만원, 영업이익은 28% 늘어나 833억 6,200만원을 기록했다. 경상이익은 82.5% 많아진 498억 8,100만원, 순이익은 36.8% 줄어든 501억 7,500만원을 나타냈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상반기까지 이어진 주택경기 호조와 지난해 9월말 인산된 시멘트 단가가 올봄 성수기 물량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 반영돼 이같은 좋은 실적을 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부, 화물연대 불법 집단행동 엄중 대처
(2003. 8. 22)

정부는 화물연대가 불법 집단행동을 벌일 경우 초기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엄중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도로,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불법 집단행동 가담자는 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합의사항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운송료 인상 문제도 협상이 진행중인 사안인 만큼 "파업을 철회하고 협상장으로 복귀하라"고 화물연대에 촉구했다.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운송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비(非)화물연대 소속 차량(전체 컨테이너 화물차 2만 5,000대 중 1만 8,000대, BCT 차량 4,100대 중 3,100대)을 최대한 동원하고 자가용 화물차가 유료 운송행위를 하는 것도 허가해 주기로 했다. 또 여객 열차 6개를 화물열차로 전환하는 등 23개 열차를

추가 투입해 화물열차 운행을 102개 열차에서 125개 열차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수송열차는 50개에서 66개로 시멘트 수송열차는 52개에서 59개로 늘어나게 됐다.

시멘트 업계

‘제조물 책임’ 대책 마련 분주

(2003. 8. 23)

시멘트 업계가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라 책임소재나 제품생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멘트가 대부분 레미콘 등 다른 생산업체의 원료나 소재로 사용되는 특성으로 사업자간 책임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소재 등에 대한 대비책을 서두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물을 규제하는 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책임이 전부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제품안전에 대해 법률·행정적 기준, 업체별 기준이나 업종단체의 공통기준 등을 통해 그동안 시행해온 제품안전대책과는 별도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채택됐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체 관계자는 시멘트업체는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레미콘 등 생산업체들과 책임분담에 대해 원칙을 정하는 동시에 완성품의 결함으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에 대해서도 책임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신도시 3~4곳 추가개발

(2003. 9. 3)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3일 오후 경기 의왕시 내손동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해부터 10년간 장기 임대주택 150만가구를 건설해 전체 주택 가운데 장기임대 비중을 현재 3.4%에서 2012년 15%로 높이기로 하는 내용을 골

자로 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150만가구 가운데 100만가구는 주택공사와 지자체가 재정과 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시중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최장 30년까지 임대되는 국민임대로 지어져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의 50%(19평형 미만) 또는 70%(19평형 이상)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된다. 나머지 50만가구는 민간업체가 주택기금을 장기저리로 지원받아 1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로 건설돼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특히 우선 2~3년간 김포, 파주, 판교, 화성 동탄, 아산신도시를 차질없이 건설하되 택지의 안정적 공급과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10년내 수도권에 3~4개 신도시를 추가 조성하고 지방에도 필요하면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를 개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업무복귀 선언

(2003. 9. 5)

전국 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가 업무 복귀를 공식 선언해 지난달 21일부터 16일째 계속된 운송 거부 사태가 마무리 됐다. 화물연대는 5일 저녁 7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운송 거부를 공식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김종인 화물연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운송업체의 ‘선복귀 후협상’ 원칙을 받아들여 이 시간 이후 전조합원이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다”며 “우리가 운송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인 만큼 운송업체는 앞으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업무복귀 이유로 “정부가 화물연대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교섭 보장 및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을 약속했기 때문에 파업을 철회하고 물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조합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만큼 지도부가 책임지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화물차 갱신등록제, 부실업체 퇴출
(2003. 9. 8)

정부는 화물차 수급조절을 위해 5년 주기로 화물 운송업체의 등록사항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갱신등록제를 도입,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자격요건도 신설하고 앞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되려면 3년 이상 운수업체 근무경력과 1대 등록사업자 무사고 경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건교부는 이밖에 일반화물차 운송사업 등록요건을 5대 이상에서 1대로 완화한 개별등록제와 적재물배상보험제도를 내년초에 도입하고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도 도입한다. 또 화물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국가물류망이 마비될 경우, 정부가 화물차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고속도로에 차량을 방치하는 운전자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택지 19곳 860만평 개발
(2003. 9. 14)

내년부터 김포 장기 등 전국 19곳에서 860만평의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된다. 또 3곳에서 90만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전국 22개 지구 95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승인이 나는대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 사업은 현재 용지 보상에 들어갔거나 보상을 준비중인데 이 가운데 화성 향남, 김포 장기 등 9개 지구는 보상에 들어갔고 판교 등 13개 지구는 이르던 연말, 늦어도 내년초에 보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또 대부분 개발계획이 승인됐거나 실시계획이 이뤄졌는데 실시계획이 승인 난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토공측은 이 가운데 300만~400만평 정도가 내년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멘트 메이저, 아시아시장 영향력 확대
(2003. 9. 15)

라파즈 등 세계5대 시멘트 메이커들의 아시아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5대 시멘트 메이저들이 북미와 유럽, 아시아 주요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특히 아시아지역의 시장지배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시멘트 메이저사들은 인도네시아 생산능력의 94%를 점유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도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태국의 전체 생산능력 가운데 59%, 말레이시아의 47%를 5대 메이저가 점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개혁과 개방의 가속화에 따라 시멘트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현지공장의 매수와 함께 공장신설 및 증설 등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시멘트업체는 지난 2001년 4,400여개사로 이중 연간 생산능력 20만톤 미만 업체가 3,700여개사이며 연산 60만톤 이상 업체수는 120여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내수규모는 국내시장의 12배 수준인 6억 6,000만톤이 이를 전망이다.

정부, 특별재해구역 24일경 선포
(2003. 9. 16)

정부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건교부, 행자부, 해양부 등 8개 부처별 태풍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을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부터 정부 합동조사에 들어가 조사를 마무리한 후 중앙재해대책위 논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건의해 24일이나 25일경 재해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재해지역의 범위는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지만 15일 오후 10시 기준 태풍피해 집계액이 1조 3,969억원으로 특별재해지역 선포기준인 1조 5,000억원에 육박해 전국이 피해지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